

대행 스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데

질문 불법에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될 듯 말 듯 알쏭달쏭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채찍 삼아 새롭게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안방에 가도 도량이요, 마당에 나가도 도량이요, 또 변소에 가도 도량인 것입니다. 거기 부처가 계시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의 자성 삼보에 과거 삼(過去三), 현재 삼(現在三), 미래 삼(未來三), 그 삼세(三世)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귀정이 되고, 그것이 한 불심의 기둥으로 바퀴가 되어 돌아가니 찰나찰나 우리가 찰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 됨됨이부터 돼야지, 만약에 인간이 되지 못하고 혹 불심을 가지고도 습을 떼지 못한다면, 깨쳤다 하더라도 다시 미(迷)해지는 그러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치기는 쉬워도 성불하기 어렵고, 성불하기는 쉬워도 열반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세 단계 없는 세 단계'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면 생과 사가 열반입니다. 생과 사가 그대로 열반과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니요,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이 둘이 아닙니다.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공한 세계와 우리 색의 세계가 어떻게 둘입니까? 색의 세계가 바로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의 세계요, 공의 세계가 바로 색의 세계지, 이게 어디 둘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이,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다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가는 한편,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공업기술도 아주 급진전해서 다른 나라보다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볼 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네 연배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쫓기는 세월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 왔는지,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은 모르고, 바다로 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재료는 발견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모두 유교로만 했지 그 넓고 넓은 불법의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모두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여서 우리는 연구도 못 했고 발전도 못 했기 때문에 남의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뼛속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바람 잘 날이 없는데도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신력을 상실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집 한 덩어리를 그냥 태워 버리려 합니다.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써 중용을 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찰나찰나 자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만 하는 데가 절이 아니라 마음을 계발하고 실천에 옮기는 실상 그대로가 우리 생활인 줄 아시고,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좌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24시간의 반을 몸을 조아리고 앉아서 좌선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공했으니 내 몸과 마음의 뜻을 다 그 자리에 놓고 그냥 살림을 한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게 좌선입니다.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해도 그것이 바로 좌선이고요. 내 마음 안이든 내 마음 바깥이든 어디든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공한 도리,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안다면 그게 좌선이에요.

이거는 사도(邪道)다, 이거는 진도(眞道)다, 정도(正道)다, 또는 대도(大道)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른다면 언제 한마음이 되며, 언제 모든 것을 버려서 내가 모두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내가 모두 얻고 내가 얻어서 전부 내 거 아님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모두 줄 수 있고 모두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천당, 지옥이 정말 있나요?

질문 천당, 지옥이라는 게 정말로 있나요? 우리 마음에 따라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힘들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천당, 지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은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니까 천당인 거고 지옥이라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들 그냥 유유히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에누리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소같이 살면 소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로 나올 것이고…, 하하하.

그런데 오간지옥이니 칼산지옥이니 또는 독사지옥이니, 이 모든 지옥 지옥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다' 하면은 짐작으로만 그냥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다가, 땅속에서 기어 다니는 벌레의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땅속으로 다니는 독사 소굴에, 독사의 암컷 수컷이 행하는 거기다가 그 영령이 집어넣어져서 그냥 독사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냥 독사로 살아왔으면 별 문제인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독사로 들어가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독사로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살듯이 어떠한 한 몫어치만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고 하는 말은 전부 헌갓쟁이 모양으로 다니며 그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땅속 깊이 뚫고 다니는 이런 것들 소굴에다 그냥 넣어진다는 말입니다. 넣어진다면 땅속으로 기어 다니는 벌레가 될 테니까 그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갔으니까. 지옥인 데다가 그것이 진화돼서 또 인간까지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헤매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하고, 좋은 행동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사대성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 일이 또 거기 끼어들게 마련이니까 나쁜 일도 놓고 좋은 일도 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 나쁜 일, 좋은 일을 막론하고, 그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 좋은 일을 해서, 그 선덕으로 인

☞ 22면으로 계속

